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완주서 업무 개시

수소용품 4개분야 63종 138점 시험·검사장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안전의 메카로 자리매김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구축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건립된 기관으로, 수소용품 법정 검사를 수행하고 수소 산업 안전을 책임진다.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제정에 따라 수소용품의 법정검사를 위해 수소

안전 핵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센터 구축을 기획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은 2021년 3월 지원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됐고, 같은해 5월 도·완주군·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내 연구용지에 2022년 12월 센터 착공을 시작했다.

동 센터는 총사업비 약 499억원으로, 부지면적 3만1276㎡, 건축물 연면적 약 7,760㎡ 규모로 시험동, 고객지원동,

사무동 총3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수소용품 4종을 중심으로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총 63종 138점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실을 갖추고 있다.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는 전문 검사장비를 활용해 국내 수소 관련 제조업체 시험 및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수출 지원으로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센터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소기업들의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관문인 수소용품 검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에 개소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훈 에너지 수소산업과장은 "센터의 본격 개시로 국내 수소산업 안전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며, "수소

안전 확보와 함께 기업유치 등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소 연계 산업 육성과 수소 산업 집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수소인프라 확보에 힘써 왔다.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현대차), 수소저장용기(일진하이솔루스) 등 수소전주기 산업군과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특히 수소용품 법정검사 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 전지 기반 구축 사업 등 평가·인증기관의 확보로 전북의 수소 산업은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만호 기자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17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중기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장 방문

생산현장 시찰·의견 청취

전북특별자치도는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17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고압 대용량 탄소 복합재 수소튜브 트레일러 실증, 탄소 소화수 탱크 제조 및 특장차 실증 등 2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튜브 트레일러 실증은 가법고 안정성이 높은 탄소 복합재 용기를 활용해 용기 무게·운영비 절감 등 기존 금속재 저장 용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운송 실증은 전주와 부안 지역을 오가는 계획으로 8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소방특장차 실증은 소화물탱크에 탄소 복합재(CFRP) 재질을 적용해 소방 펌프차 내 소화수 저장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개정 완료 후 조달청 혁신제품에도 지정되는 등 전국적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규제 자유 특구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특구 사업 지원 이후 사업화 방안 및 관료 개혁 등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며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올해는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한 탄소 규제 자유 특구 실증사업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들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7월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본격 시행

전북자치도가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도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참혜복지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 자온'을 24시간 개별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법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의 3가지 유형으로, 통합돌봄 전문인력이 일대일로 돌봄을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신청대상자는 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으로,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방문조사와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도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의 초석 마련

김중훈 경제부지사, 동물용의약품 연관기업 간담회 주재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도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에서 동물용 의약품 연관기업들과 기업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 11개 동물용 의약품

연관기업 대표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동물용 의약품 연관기업 대표들이 각자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건의하고, 자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노력을 소개하며 연구소 이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들과 협력을 통

한 해당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우리 도가 동물용 의약품 연관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과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부안군 지진 발생 대응 재난 심리 지원

도,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우울, 불면 등 재난 충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겪는 도민에게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안 내륙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1978년 지진 계측이 시작된 이래로 호남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모인 4.8이었으며, 지진을 겪어보지 않은

군민들에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더욱 높을 수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전 도민 재난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와 정보제공을 기본으로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운영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스트레스 측정 △1:1 심층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